

# 로봇

글 | 송지혜

그림 | 박수진

글 | 송지혜

그림 | 박수진

편집 | 김은파, 이수인, 이정아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윤성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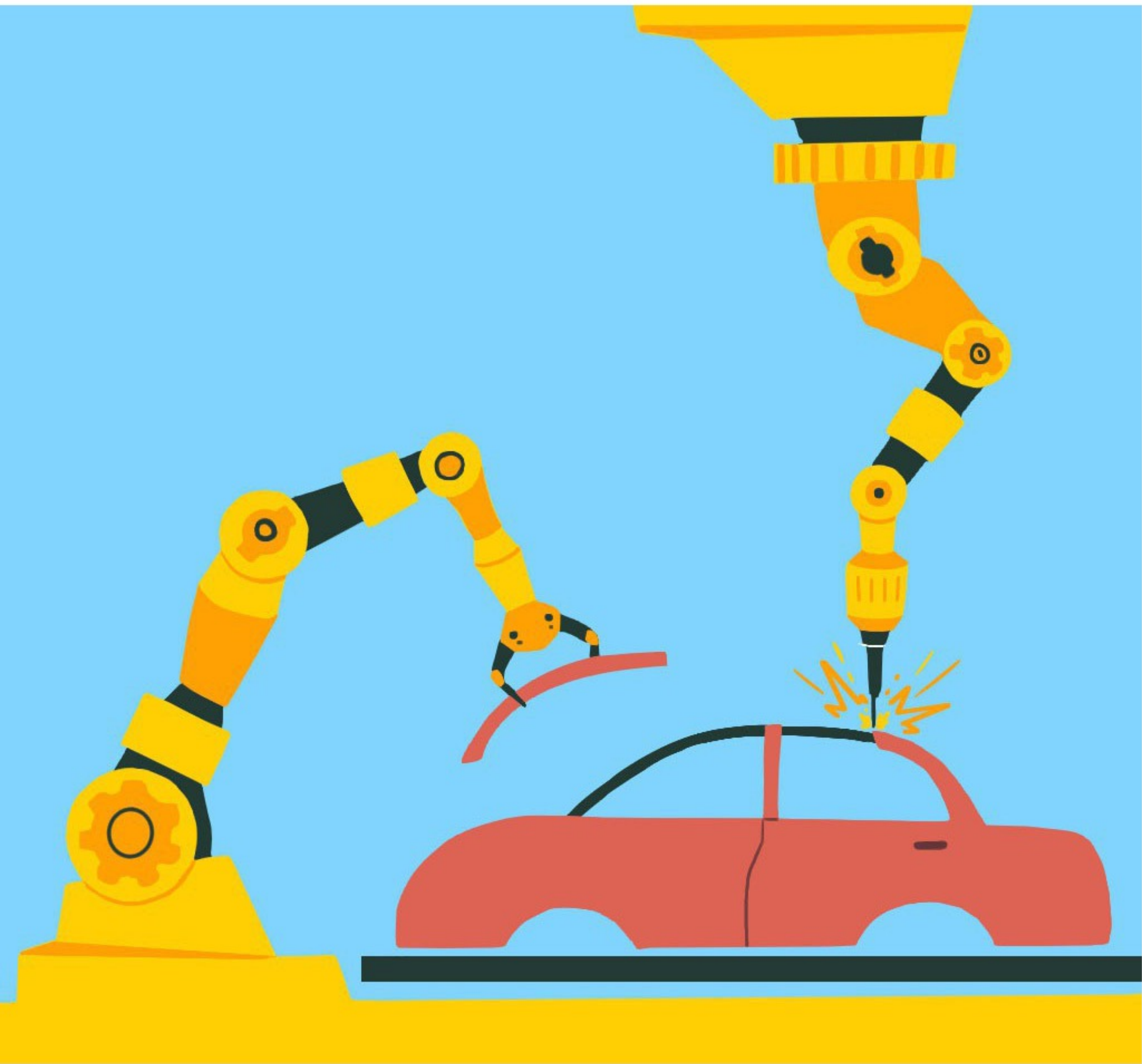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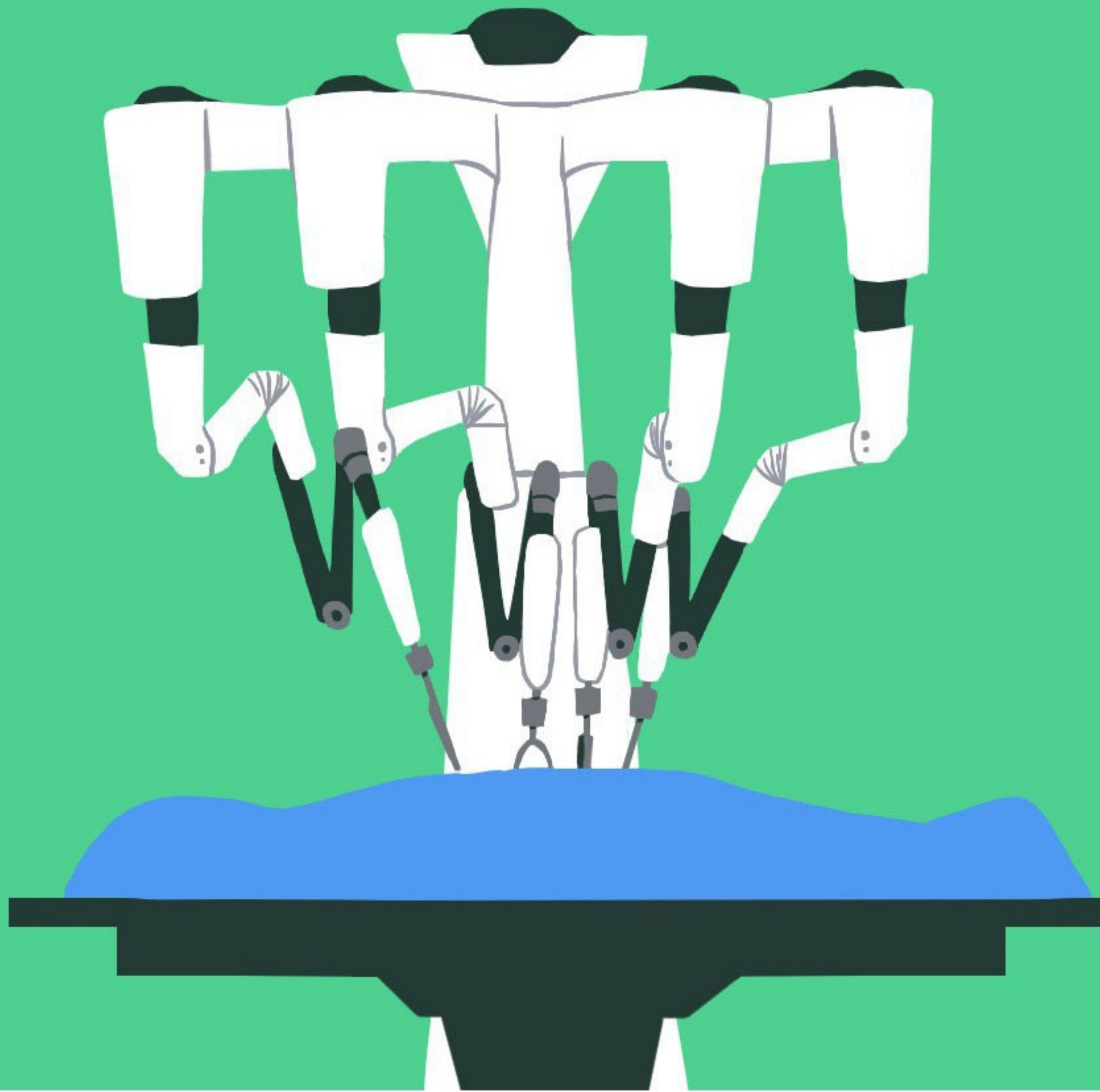
전기밥솥이 ‘칙칙’ 소리를 내며 맛있는 밥을 지어요. 로봇 청소기가 혼자 마룻바닥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해 주고 더러워진 옷은 세탁기가 빨아 주지요. 이 모두는 집에서 볼 수 있는 로봇입니다.



로봇은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계를 말해요. 사람 대신 번거롭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 주지요. 튼튼하고 힘도 세며,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곳은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사람 팔처럼 생긴  
로봇이 부품을 조립하거나  
용접하는 일을 담당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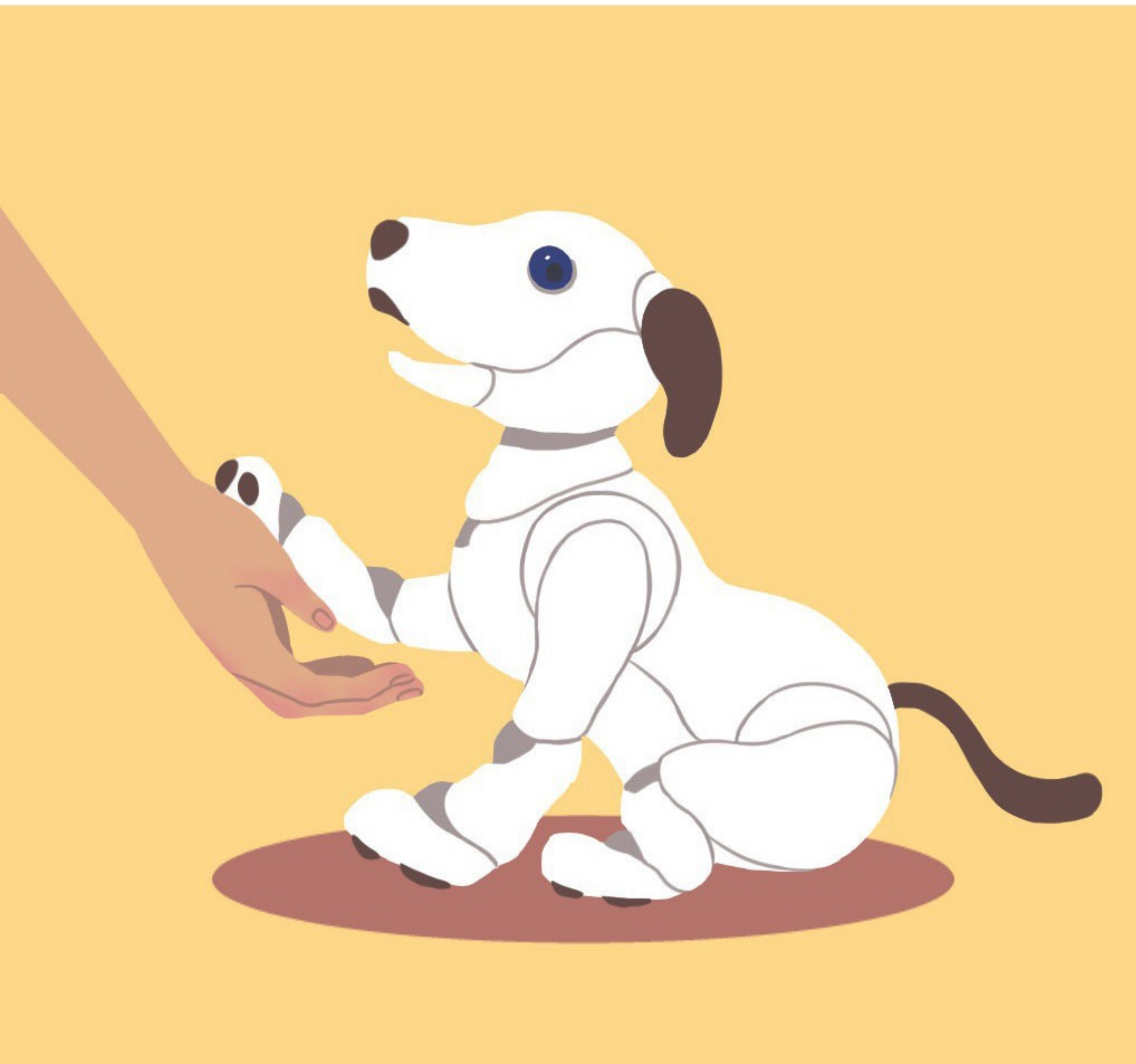
이곳은 병원의 수술실이에요.  
의사의 손동작을 흉내 내며  
정교한 수술을 돕기도 해요.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깊은  
바닷속이나 저 하늘 높이까지!  
로봇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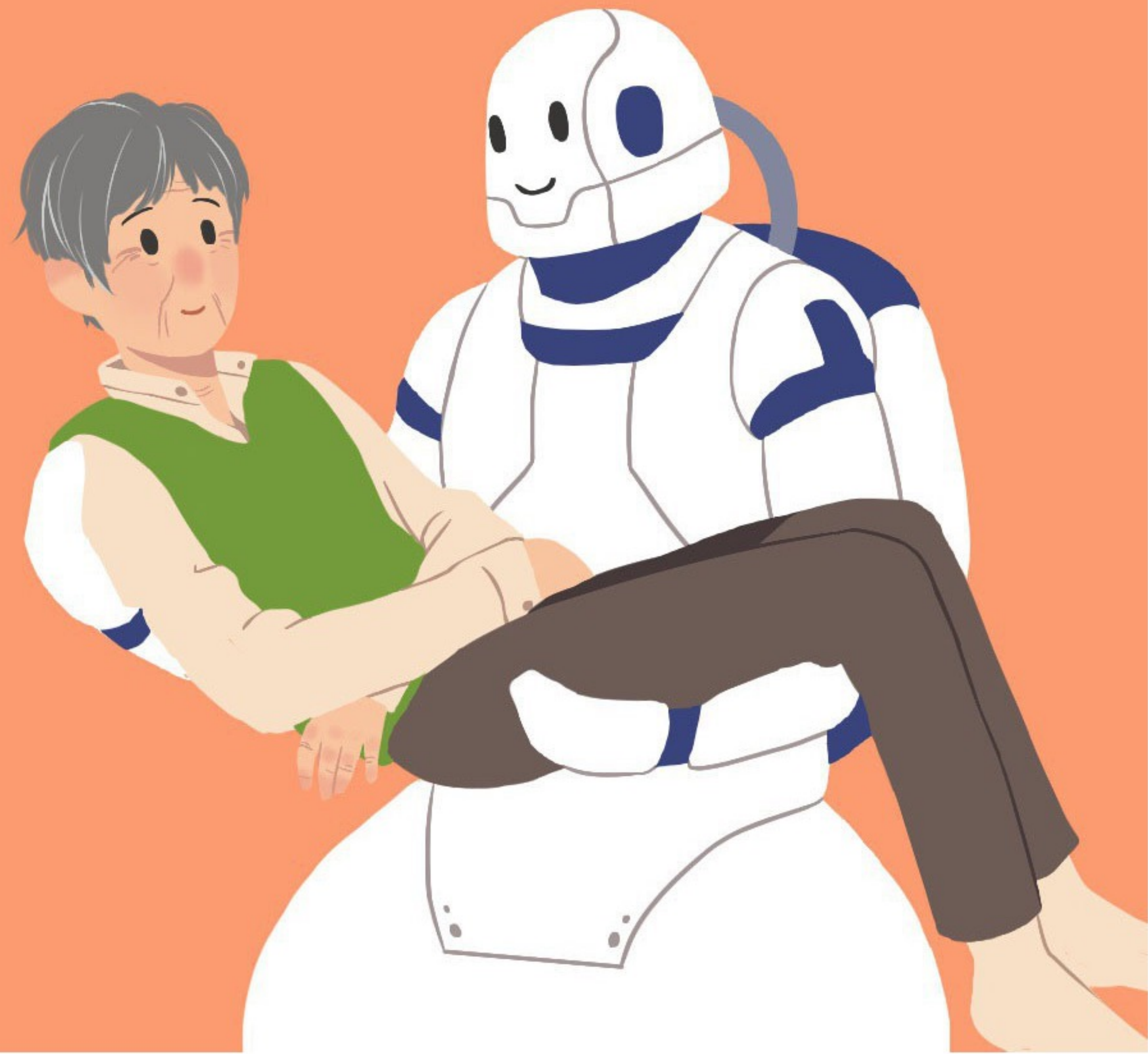


이번에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까지 슈웅 날아가 볼까요?  
지구와 달, 그리고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 로봇 덕분에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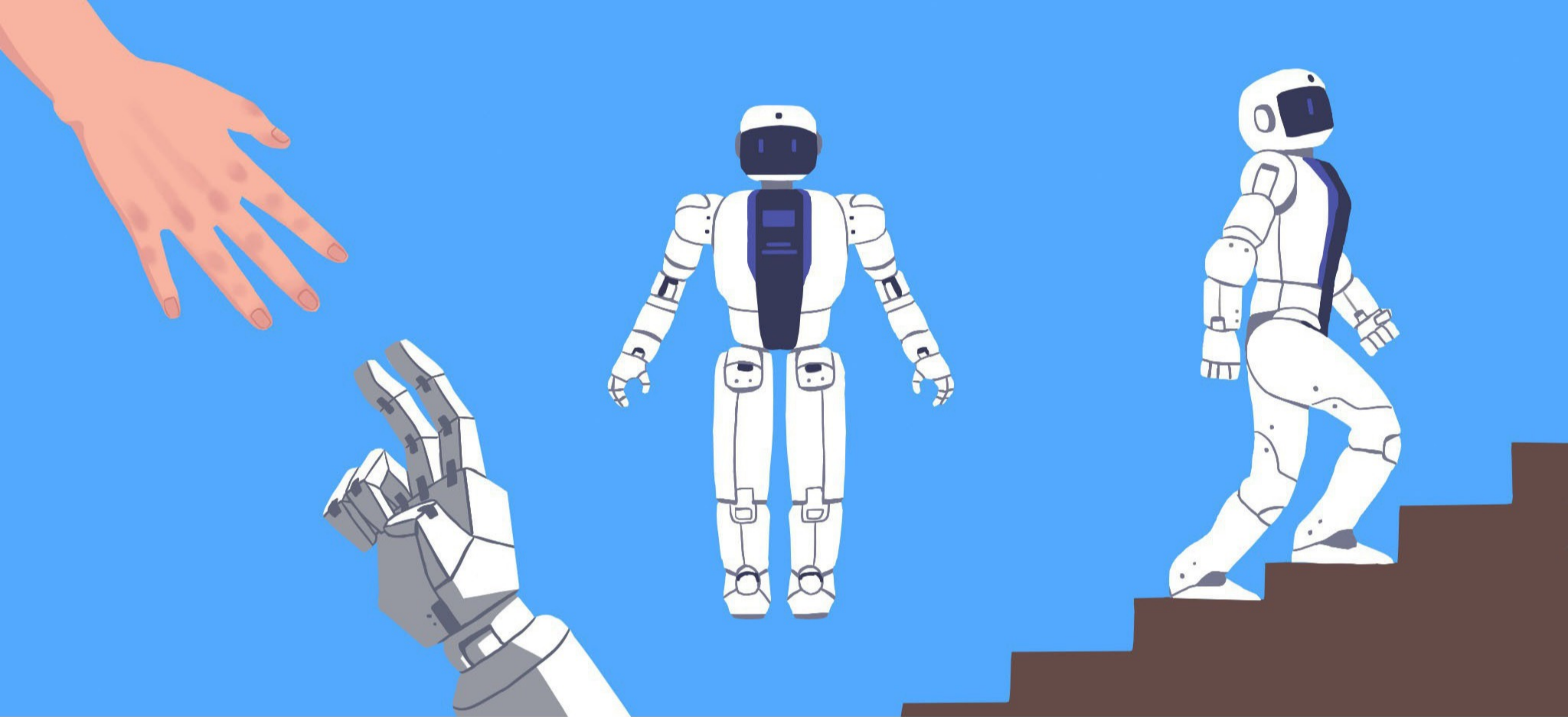


로봇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기도 해요. 로봇 강아지는  
사람을 보면 꼬리를 흔들거나  
재롱을 떨기도 해요. 사람의  
명령에 따라 장난감 공을 물어  
오기도 한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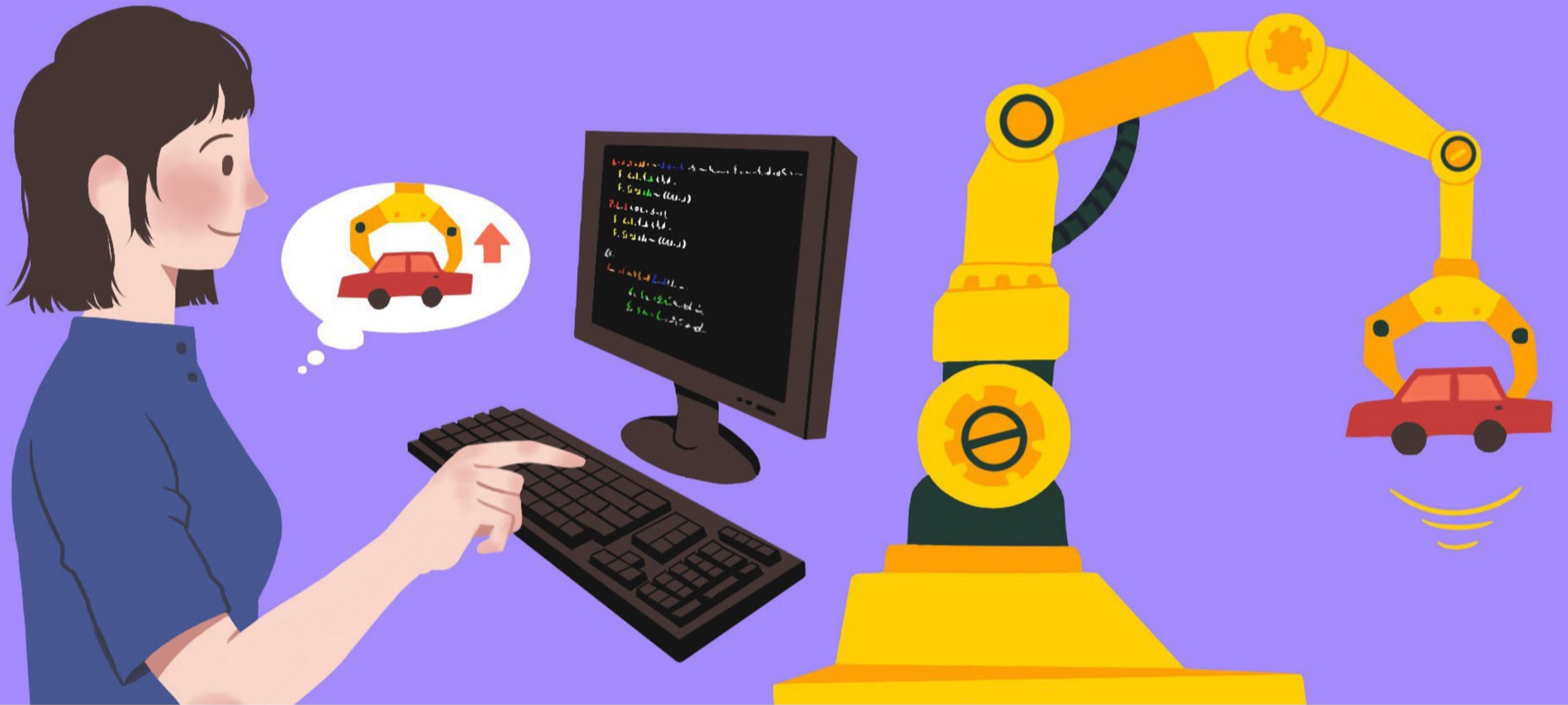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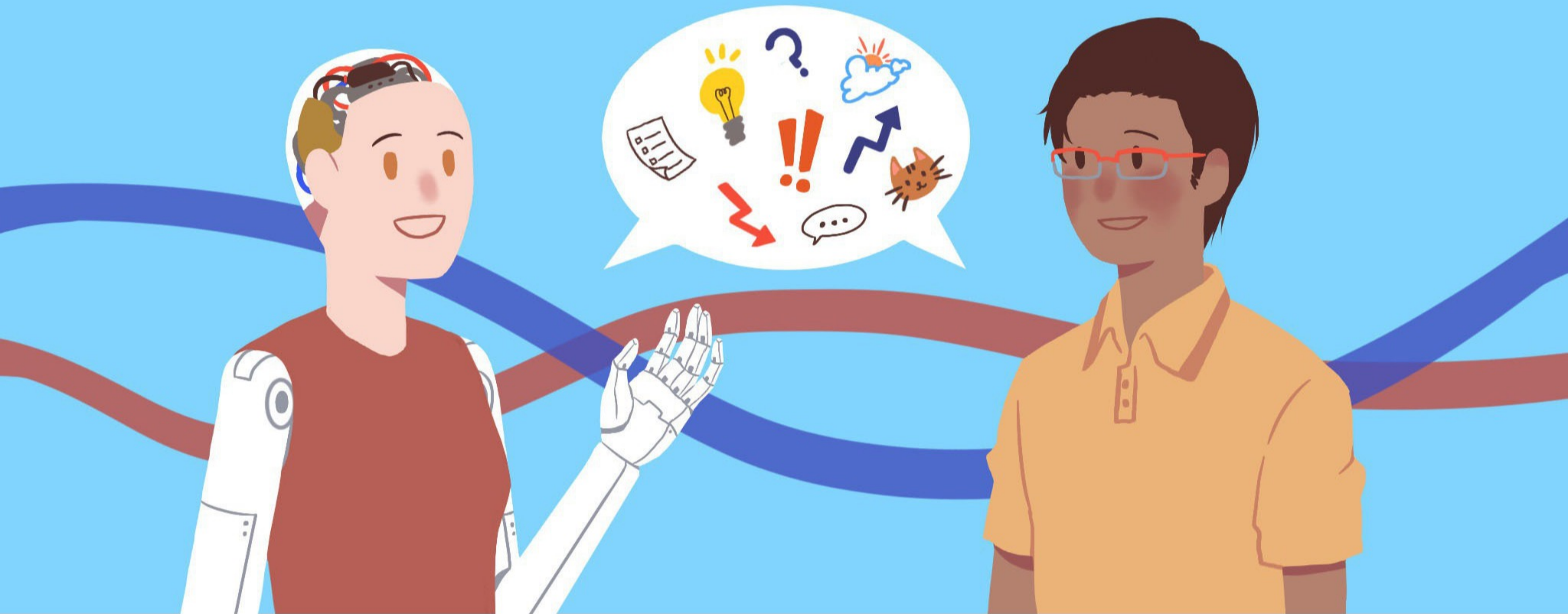
돌봄 로봇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 주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요.



사람과 비슷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따라 할 수 있는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해요. 사람처럼 손가락으로 가위바위보도 할 수 있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춤을 출 수도 있지요.



이처럼 신기하고 놀라운 로봇은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로봇의 몸 속에는 컴퓨터가 들어 있어요. 사람이 컴퓨터 속에 미리 명령을 짜 놓으면 로봇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거랍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사람과 똑같은 얼굴로 여러 표정을 짓는 휴머노이드도 개발되었지요. 만약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도 닮게 된다면, 곧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따뜻한 감정을 가진 로봇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미래에는 더 다양한 로봇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겠지요. 로봇을 많이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크게 달라질지도 몰라요. 앞으로 어떤 로봇이 등장할까요?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상상해 봐요.

“로봇”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